타카야수 동맥염(Takayasus Arteritis)의 진단을 위한 MRI 검사법에 관한 고찰

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

윤영준, 이승근, 피우현, 신창희, 조남수

목 적 : 동맥 전체에서 발생하는 질환인 타카야수 동맥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혈관조영검사의 침습적인 방법이 시행되었다. 이에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비침습적이고 광범위한 동맥을 영상화할 수 있는 MRI 검사법을 고찰해 보고, 기존의 혈관 조영검사와 비교 분석하여 임상적 평가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

① 대상 : 2001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내원한 환자 중 타카야수 동맥염이 의심되는 환자(83명)를 대상으로 moving-table을 이용한 MRI검사를 시행하였다.

- 사용장비-MR 1.5T(GE signa cv/i), peripheral vascular(PV) coil, cardiac coil, auto injector, ECG gating

② 방법 : 첫번째, 1회의 조영제 사용(auto injector)으로 복부부터 하지 전체의 동맥을 한번에 영상화할 수 있는 moving-table을 이용하여 검사한다.

두번째, 흉부와 복부의 동맥의 조영 증강 Axial T1 SE 검사를 한다.

세번째, 대동맥궁 분지부터 두경부까지의 혈관 조영 검사를 한다.

결 과 : 83명(96건)의 타카야수 동맥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MRI검사 결과, 타카야수 동맥염으로 확진된 환자 78명(94%) 중, 남자가 16명(20.5%)이고, 여자는 62명(79.5%)이었다. 또한 동맥염이 확인된 부위별로 분석한 결과, 두 부위 이상의 동맥염이 39명(50%), 한 부위만의 동맥 염이 39명(50%)으로 조사되었다.

결론 및 고찰 : 근래에 들어서 동맥의 여러 부위에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타카야수 동맥염을 진단하기 위한 혈관조영검사는 감소되는 추세이고 치료목적의 혈관조영검사가 증가하고 있다. 따라서 타카야수 동맥염을 진단하기 위하여 moving-table을 이용한 MRI 검사는 기존의 혈관조영검사에서 환자에게 가해졌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, 또한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동맥염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검사라 할 수 있다.